자비 24시 ❷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탁구교실에 모인 어르신들은 선수 못지 않은 기량으로 점수 대결을 벌였다.



리모델링한 복지관을 본 이용자들은 "복지관이 문화시설이 됐다"고 칭찬했다.



마케팅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관내에 VR, AR 등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놀라운드를 개소하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사진은 로봇축구 체험 중인 어린이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복지관도 브랜드 시대"…마케팅으로 다가서다

서울 중구 4개동 사회복지 선도 中
지역 · 주민 연결 'LINK'로 도약
복지관 브랜드化…홍보에 박차
복지관 색상, 비전 키워드 도입
리모델링으로 편안한 공간 구축
창의적 사업으로 지역 · 주민 소통↑
지역 네트워크 허브로서 도약 목표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아이고, 탁구를 힘으로 하나 기술로 하지!"

날쌔게 날아온 탁구공을 쫓으려다 놓친 한 어르신이 소리를 내지른다. 공을 날려버린 반대편 어르신은 며칠 전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 같다며 팔을 들어 근육을 자랑해보였다. 공을 놓친 어르신이 심판을 향해 항의하는 모습까지 흡사 고등학교 체육시간을 방불케 했다.

어르신들의 한바탕 힘자랑이 벌어진 이곳은 운동센터도, 체육관도 아닌 복지관 한 켠의 탁구교실. 서울 곳곳에서 모인 주민들은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며 삶을 다채롭게 꾸리고 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이용 10년차 김태선(73, 탁구교실 회원) 씨는 복지관이 문을 여는 날마다 '출근'하는 모범이용자다. 우연히 알게 된 복지관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힘찬 운동까지 겸하다 보니 건강도 회복했다.

김 씨는 "재미삼아 시작한 탁구교실 덕분에 혈당 수치가 좋아지고 친구까지 늘었다"며 "변화를 느끼기 전까지는 복지관이란 단순히 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생활을 탈바꿈시키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술회했다.

이용자 자치운영위원회 운영진 경험이 있는 김 씨는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관 홍보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적절한 사업과 프로그램 있음에도 홍보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없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다.

"복지관이 좋은 사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잠재 이용자들을 위한 효과적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즘 복지관이 가진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용자가 말한 복지관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처럼 홍보마케팅에 진심인 복지관이 바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복지관 브랜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의 4개 동(중림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을 담당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복지관 홍보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시설 리모델링,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역량 교육까지 일궈내는 중이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거치며 '전략기획팀'을 신설한 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마케팅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팀에서는 복지관 브랜딩을 위한 다방면의 방편으로 복지관의 운영 방향을 알리는 기자간담회, SNS 운영 등을 구상했다.

가장 중요했던 핵심 작업은 복지관의 키워드화였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을 더욱 잘 기억하도록 정의한 단어는 바로 'Link(링크)'. Link에는 주민들의 삶(Life)과 선한 영향력(Impact), 마을과 이웃(Neighbor), 지식과 경험(Knowledge)을 연결한다는 뜻이 담겼다. 지역과 주민을 잇는 복지 네트워크 허브로서 역할하길 바라는 중림종합복지관의 비전이 'Link'에 함축됐다.

복지관 인테리어 역시 혁신을 거쳤다. 사업뿐만 아니라 직원, 시설환경까지 종합적인 만족감을 제공해야 이용도가 높아지는 복지관 특성상 새로운 변혁이 필요했다. 복지관만의 대표 색깔을 붉은 빛깔의 벽돌색으로 정하고 밋밋했던 벽면과 시설물에 색칠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직선적이고 딱딱했던 시설물 역시 곡선형의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리모델링 후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복지관이 편안한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칭찬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자기 역량 계발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 직접 이웃들과 만나 사업을 시행하는 이들을 위한 역량 교육과 정서 지원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이해경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용자에게 적합하고 창의적인 사업은 창의적인 복지사에게 나온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소통과 화합을 일궈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소통 능력과 창의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덕분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적인 복지관 브랜딩을 통해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알리고 싶은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주민 간의 소통을 늘려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웃기웃' '동네나눔밥집' '늘품학습센터' 등이 이웃들과 만나는 중이다.

'이웃기웃'은 고시원 등으로 대표되는 비적정 거주지의 고립가구들을 발굴해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고립된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이웃을 돕는 '동네나눔밥집'은 동네 상권까지 활성화시킨 효자 사업이다. 복지관에서 식사 쿠폰을 제공해 취약계층 주민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올려 상생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시작한 동네나눔밥집을 통해 현재까지 약 1750여 취약주민이 지원받았고 영세 소상공인 요식업소 45개소의 총 매출금액 4억4600여 만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탁구, 댄스, 어학, 태극권 등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늘품학습센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에만 주민 800여 명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늘품학습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복지관 동아리를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권장한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커뮤니티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브랜딩'을 택한 복지관의 행보는 앞으로 어디로 향할까? 이해경 관장은 복지관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모체이자 지역 대표 브랜드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올해 개관 13년차인 중림사회복지관은 함께한 직원과 주민들이 있었기에 성장해올 수 있었습니다. 주민과 마을을 잇는 Link, 저희가 만든 미션처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경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Q. 사회복지에 대한 원력을 세우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A. 사회복지학과 재학 당시 봉사활동과 실습 현장에서 너무나 큰 즐거움을 느꼈어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했죠.

Q. 복지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A.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재임 당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들의 의견을 정책제안서로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정책이 서울시 노인복지관 전체에 배포되고 프로그램으로 꾸려지는 과정을 보니 너무나 뿌듯했어요. 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만들 수 있어서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과도기였다고 생각해요.

Q. 관장 부임 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나요?

A. 직원들 스스로 가진 뛰어난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했어요. 우수한 직원들이 만든 우수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에도 매진하려고 했죠. 지금은 진행 단계이지만, 앞으로 시설의 발전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싶어요.

Q. 사회복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A.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정말 온갖 일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실패를 반드시 경험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실패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실패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몸소 느껴봐야 이후에 더욱 좋은 사업을 이끌 수 있습니다.

어싱과 온열로, 건강한 잠의 시작

※ 어씽(Earthing)이란, 한마디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고 누워있음으로 인해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지의 어머니와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음이온, 음전하, 음전자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어씽을 하면 음전하가 몸에 유입되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염증반응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자연스레 밸런스를 찾게 된다.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판매 기념



전 구매고객 숨 어싱베개 (12만원 상당) 증정

어싱단자 포함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할인가

찜질(디톡스) + 어싱(맨발걷기) + 온열(체온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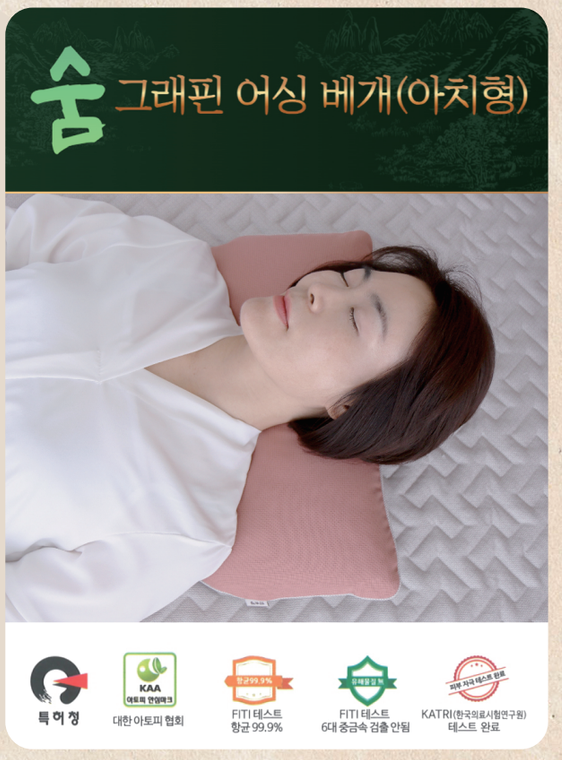
프리미엄 어싱매트 (팥)_싱글
판매가 2,380,000원



프리미엄 어싱매트 (팥/매쉬)_싱글 판매가 2,380,000원
프리미엄 어싱매트 (매쉬)_퀸 판매가 2,700,000원



케겔 음파운동기 판매가 1,580,000원



숨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판매가 120,000원
숨 그래핀 어싱 베개 (일자형) 판매가 95,000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